

“평소 감췄던 모습까지 저침없이 보여드려요”

KBS ‘하숙집 딸들’ 이미숙·박시연·박수홍 등 출연
매주 새로운 남자 하숙생과 게임·토크 등 입주 테스트

‘팜프파탈 안방마님’ 배우 이미숙의 집에서 하숙하는 기분은 어떨까. 그의 딸들인 박시연·장신영·이다해·윤소이 등 개성 충만한 여배우들에, 만년 고시생이란 설정의 박수홍, 안방마님의 하나뿐인 남동생이라는 이수근도 함께다.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하숙살이다.

이 만만치 않은 생활을 하게 될 행운(?)의 남자는 매주 바뀌는데, 게임이면 게임, 토크면 토크 등 입주 테스트를 거쳐야 결정된다.

14일 밤 첫 방송을 탄 KBS 2TV 새 화요일예능 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은 하숙집에서 벌이는 시추에이션 리얼 버라이어티다.

멤버 면면을 보니 세트장이 아닌 실제 주택에서 스태프와 대본도 없이 시트콤과 예능을 넘나들며 하숙집을 끌어갈 ‘엄마’ 이미숙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이미숙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기자가 예능에 출연한다는 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융감한 결정을 내려준 후배들에게는 화이팅하자고 격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작품 속에서 정해진 캐릭터와 이미지를 고수해야 하는데 예능에서 무너지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요새는 연기자들도 그저 숨는 게 미덕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장르’가 아니

나”고 설명했다.

이미숙은 네 딸에 대해 거침없는 평을 쏟아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성이 다들 착한데, 다들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도 내가 밀리는 건 키밖에 없다”며 웃었다.

이어 “첫째 딸 시연이는 조금 멍하다. 물론 멍한 게 사실 똑똑한 것일 수 있다”며 “프로그래머 오래갈수록 시연이만 살아남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둘째딸 장신영에 대한선 “책임감이 있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고 말해 장신영을 당황하게 했다. 셋째 이다해와 관련해서 “첫 촬영을 다해네 집에서 했는데 그렇게 여성스럽게 집을 꾸미는 배우인 줄 처음 알았다”며 “다해한테 ‘네가 좀 각쟁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엔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막내 윤소이를 “잘없는 막내로, 발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너는 좋게 꾸며서 말을 못해주겠다”며 말해 예능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다해는 “얼마 전 촬영장에서 ‘엄마’ 이미숙 선배님이 저희한테 ‘우리는 너무 저질이다. 이 이상 저질일 수가 없다’고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여배우들끼리) 기 싸움도 좀 있을까 싶었는데 원래 다 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견제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게임을 할 때 너무 독하게 해서 정희섭 PD가 처음에 저희를 섭외할 때 내세운 ‘고품격 토크쇼’와 달리 저품격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싶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만년 개고 고시생으로 변신한 박수홍은 “매주 새롭게 올 남자 하숙생과는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 “제 역할을 그들을 막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수근은 “진짜 이번 프로그램에서 수홍이 형이 제 ‘조카’들과 잘됐으면 좋겠다. 저도 기대하고 형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박수홍은 안방마님 이미숙에 대해서도 “미숙 누님이 술선수범하고 다른 분들도 빠지 않고 참여해 금방 친해졌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후배 이수근에 대한선 “정말 잘한다고 손꼽는 후배 중에 첫째”라며 “음식의 올리브유처럼 이수근씨가 우리 프로그램의 윤활유가 됐다.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가장 악한 역할…말투부터 고쳤다”

영화 ‘프리즌’ 익호 役 한석규…장흥서 촬영, 3월 하순 개봉

한석규와 김래원이 의사 가운을 벗고 영화 ‘프리즌’에서 교도소 재소자로 변신했다. ‘프리즌’은 매일 밤 교도소 담장을 넘어 세상에 나가 범죄를 저지른 뒤 복귀하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범죄 액션 영화다.

한석규는 감옥 안을 지배하는 교도소 권력 실제 익호역을 맡았다. 교도소 안에서 범죄 전문 선수들을 선발하고 완전범죄를 계획하는 인물이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악역이다.

한석규는 14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프리즌’ 제작보고회에서 익호 캐릭터는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악한 역할이라고 꼽았다.

한석규는 “처음 시나리오 읽고 나서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능적으로 두려웠다”며 “그러나 독특한 소재와 주제가 있는,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인 작품이어서 도전했다”고 말했다.

중저음의 자상한 말투가 트레이드마크인 한석규는 악역을 위해 자신의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드라마 ‘닥터스’에서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줬던 김래원은 전직 악질형사 유건 역을 맡아 액션 연기를 펼쳤다. 한때 저승사자와 불릴 정도로 잘 나가는 경찰이었지만 뺑소니, 증거인멸 등의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익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김래원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 교도소장역의 정웅인, 감옥 안 ‘트러블 메이커’ 신성록, 익호의 행동대장 조재연, 교정국장 이경영 등 개성 강한 연기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주·조연급 여성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는다.

‘프리즌’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교도소인 장흥 교도소에서 4개월간 촬영해 현실감을 높였다. 3월 하순 개봉한다. /연합뉴스



이미숙

한석규

김래원

정웅인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창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미래기획 2030 <초저출산시대, 아이가 희망이다>(재)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김과장>(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재)	00 SBS 12뉴스 25 KBC 12뉴스 45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가요무대(재)	00 버타민(재)		
2	55 100회 특집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코리언 지오그래피 플러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프리파라 2	00 SBS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이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간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돋움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2부작 <행복한 노후로집>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12	3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매루 문명기행 3부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타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할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치 감자조림과 진미채 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극한직업-디지털 고고학자>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땅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7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큐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밤송이 조개, 성계> 20:50 세계테마기행 <살이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3부 중생대의 숲을 거닐다> 21:30 한국기행 <겨울과 산다 3부 울릉도 맛나다> 21:50 EBS 다큐 프레임 22:45 국한직업 <인도네시아 유행 광산>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초대석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월 19일 癸酉)

子	4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속에 행운이 따른다. 60년생 이웃과의 관계가 긴요하다. 72년생 의무를 다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리라. 84년생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장차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37	午	42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어 썩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54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66년생 매우 소중히 여겨야겠다. 78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90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87, 77
丑	49년생 별것 아니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61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자. 73년생 배가 빈 노력이 경주해야 승산이 있다. 85년생 이타적 조치가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5	未	43년생 애매해졌다. 55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67년생 지속적으로 이름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79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91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 68
寅	50년생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62년생 국면 타개에 매진해야겠다. 74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자. 86년생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55, 36	申	44년생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절실하다. 56년생 가면 갈수록 점점 수월해질 것이다. 68년생 융통성만 있다면 가변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80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승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6, 49
卯	51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63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75년생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래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87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01	酉	45년생 굳이 힘들어서 남에게 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알뜰하다. 57년생 시종일관하자. 69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81년생 쉼이 어 있으면 잘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95, 25
辰	52년생 집중해야만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의도적으러라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76년생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88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발전을 기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2, 78	戌	46년생 세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58년생 도리를 따르고 이치에 순응하자. 70년생 무의미하다면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82년생 굳이 지엽적인 부분에게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97, 72
巳	53년생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바의 방향이 행운과 일치해졌다. 65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77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89년생 항심으로 대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94	亥	47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이니 절대로 늦지 않도록 하라. 59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 없다. 71년생 다양함을 아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83년생 기틀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66, 0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